



손기정 역 하정우 서윤복 역 임시완

# ‘전설의 마라토너’ 감동 실화 온다

우리나라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전설적 마라토너들이 스크린에서 되살아난다. 오는 27일 개봉하는 강제규 감독의 영화 ‘1947 보스턴’을 통해서다.

이 영화는 1947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서윤복(임시완 분)과 그의 감독 손기정(하정우), 코치 남승룡(배성우)의 이야기를 그린 스포츠 드라마로 강 감독이 약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강 감독은 31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혼란 시기에 세계대회에 나가서 원대한 꿈을 펼치려는 세 마라토너의 열정과 희생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출을 하며) 그때와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를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며 “(저처럼) 그 당시의 시대정신이 힘들게 살아가는 현재의 많은 관객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손기정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 베를린을 람픽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그러나 일제 속속으로 경기를 펼 수밖에 없던 탓에 시상식이 열리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목욕으로 일장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가렸다.

국내 신문사가 금메달 획득 소식을 전하면서 유니폼의 일장기를 지운 이른바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일어나 언론인들이 탄압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손 선생은 베를린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자 친구 남승룡 선생과 함께 광복 후인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서윤복 선수를 이끌어 드라마 같은 역사를 다시 한번 썼다.

강 감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보니 어떻게 사실에 근접하게 보여줄지를 고민했다”며 “시나리오를 작업할 때도 픽션을 최소화하고 실제 이야기를 충실하게 담으려 노력했다”고 연출 방향을 설명했다.

## 영화 ‘1947 보스턴’ 27일 개봉

손기정·서윤복·남승룡 도전기 강제규 감독 “실제 이야기 충실” 하정우 “손기정 선생 큰 울림” 임시완 “촬영때 국가대표라 생각”



강제규 감독

곱직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을 연기한 만큼 배우들 역시 마음가짐이 남달랐다고 강조했다.

하정우는 손 선생을 두고 “민족의 영웅”이라면서 “손기정 선생님을 생각하며 촬영에 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실제 성격부터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등 크고 작은 것들을 감독님께 다 여쭙보며 조심스럽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두 선수에 관한 역사를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시나리오를 읽고 큰 울림을 느껴 출연을 결심했다고 했다.

서윤복 역을 맡은 임시완 역시 “서 선생은 대한민국의 최초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된 분”이라면서 “이 작품에 참여하는 동안 안만큼은 (내가)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감독은 두 배우가 각각 실제 손기정과 서윤복을 닮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촬영이 15%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합류한 임시완을 처음 봤을 때는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강 감독은 “첫 촬영 때 임시완 씨가 카메라 프레임에 잡힌 모습을 보고서 저도 모르게 ‘서윤복이 나타났다’고 중얼거렸다”면서 “제가 생각한 서윤복과 임시완의 일체감으로 인해 소름이 돋는, 굉장한 짜릿한 경험이었다”고 돌아봤다.

임시완은 현역 마라톤 선수의 외모를 갖춰야 하는 데다 달리기 장면도 많아 촬영 두 달 전부터 훈련에 매진했다.

그는 “마라톤을 해보는 게 처음이고 짧은 기간에 (마라토너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서 코치와 계속해서 훈련했다”면서 “영화 촬영이 끝날 때까지 식단 관리도 병행해 쫄쫄한 근육을 만들었다”며 웃었다.

이날 제작보고회에는 남승룡 역을 맡은 배성우는 불참했다. 그는 “1947 보스턴’ 촬영이 끝난 이후인 2020년 11월 음주운전이 적발되고부터는 기자회견 등 각종 공식 석상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강 감독은 배성우가 등장하는 장면을 편집하거나 재촬영하지 않고 그대로 개봉하기로 했다.

강 감독은 이와 관련, “(편집으로) 남승룡 선생님의 삶의 궤적이 축소되거나 변형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민 끝에 작품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가을밤, 우리 가락 풍류 속으로

나뎌, 북구문화센터서 내일 공연...편곡 민요·정악 등 감상



공연에 앞서 합주를 연습하고 있는 '나뎌'.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뎌 제공>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뎌가 오는 9월 2일(오후 7시)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모두의 국악 플러스’를 선보인다. 국악을 공부하는 청소년과 성인, 우리 풍류를 즐기는 남녀노소를 모두 더하면 국악의 풍류가 배가 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현무가 작곡한 창작관현악곡 ‘정답은 없지’와 ‘행복한 아침’을 먼저 듣는다. 곡의 제목부터 밝은 희망을 암시하는 레퍼토리를 대금과 소금, 피리, 태평소, 해금 및 가야금으로 연주할 예정이다.

나뎌가 편곡한 우리나라 민요를 감상하는 시간도 있다. 인생무상부터 남녀간 연정을 아우르는 ‘너영나영’, ‘도라지타령’과 ‘밀양아리랑’ 등 익숙한 곡들이다.

민간 상류층과 궁중에서 주로 연주된 사대부 음악 ‘정악(正樂)’도 감상할 수 있다. ‘평조희상’ 중

염불도드리를 문소정(해금), 최승아(장단)가 연주한다. 이어 창작중주곡 ‘어서 봄이 오기를’, ‘공이 좋아요’도 펼쳐진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연도 예정돼 있다. 애니메이션 음악 ‘코코몽’ 오프닝곡, ‘고스트볼의 비밀’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나뎌가 편곡해 무대에 올린다. 또 ‘청소년을 위한 국악관현악곡’으로 ‘상록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도 들을 수 있다.

한편 나뎌는 국악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오고 있는 단체이다. 전통악기 ‘소금’을 유튜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달콤한 소금’, 피아노로 듣는 우리 민요 ‘음반 Heimish’ 등을 선보여왔다.

무료 진행(자유석). 자세한 내용은 나뎌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올 여름 한국영화 승자는 ‘밀수’



### 누적 관객 500만명 돌파

류승완 감독의 해양 범죄 활극 ‘밀수(사진)’가 30일 누적 관객 수 500만명을 넘었다고 배급사 뉴(NEW)가 밝혔다.

지난 7월 26일 개봉한 지 36일만으로, 올여름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유일하게 500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월 9일 개봉한 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포리아’가 전일까지 총 337만여 명을 동원했으나 ‘밀수’보다 관객 운집 속도가 느린 편이다.

‘밀수’의 흥행 요인으로는 개봉 타이밍 외에도 액션과 코미디의 적절한 조합, 화려한 스타 배우진, 소재와 배경의 독특함 등이 꼽힌다.

이 영화는 1970년대 가상의 바닷가 도시 근권에서 펼쳐지는 해녀들의 밀수 범죄를 그렸다.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고민시 등이 출연했다.

/연합뉴스

###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 30분 소요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유)신진해운 061)244-0522